東洋學 第47輯(2010年 2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단국대학교*

한 시 준**

국문초록

해방 후 대학을 설립한 주체의 하나는 독립운동 세력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환국 후,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는 환국 직후 내무부 산하에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행정연구위회에 대학설립을 맡겼다. 신익희가 내무부장으로 그 책임을 맡았다.

신익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협의하여 '국민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취지아래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기성회는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을 고문, 외무부장 조소앙을 명예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신익희가 맡았다. 국내의 각계 인사 40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기성회 중심으로 대학설립을 추진해 나갔다.

기성회에서 실무를 주도한 것은 회장 신익희와 이사 장형이었다. 장형은 군자금을 모집하며 서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심양에서 김홍일을 만나 '국내에 들어가 김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귀국하여 이사에 참여하였다. 기성회는 5천만원의 대학설립 기금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때 장형이 독립운동 시기의 동지였던 박기홍의 미망인 조희재로부터 5만평의 토지를 기증받았다. 그리고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여 1946년 9월 1일 국민대학을 설립하였다.

국민대학은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었다. 신익희가 학장, 장형이 이사장으로 대학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신익희가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떠나 이승만측과 한국민주당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장형은 이를 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고, 국민대학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잇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대학을 별도로 설립키로 했다. 조희재가 이에 적극 찬동하고, 80만평의 토지를 기증하였다. 장형은 이를 기반으로 대학설립을 추진, 1947년 11월 단국대학을 설립하였다. 단국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은 국민대학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단국대학이었다.

여기에는 김구와의 관계도 작용하였다. 장형은 김구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고, 김구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구가 설립한 건국실천원양성소의 이사장을 맡아, 소장 김구와 함께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단국'이란 교명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장형은 임시정부와 김구가 추진하는 통일국가수립을 지지하였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하는데, 남북이 모두 받들 수 있는 것은 단군의 건국정신이라 보고, 교명을 '단국'이라고 정한 것이다.

[주제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대학설립기성회, 국민대학, 단국대학, 건국실천원양성소, 김구, 신익희, 장형, 조희재

* 이 논문은 2009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 seejhan@dankook.ac.kr

목 차

Ⅰ. 머리말
Ⅱ. 임시정부의 환국과 대학설립 추진
Ⅲ. 張炯의 참여와 국민대학 설립
Ⅳ. 金九와 張炯, 건국실천원양성소 설립 운영
Ⅴ. 張炯의 국민대학 결별과 단국대학 설립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해방 후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대학의 설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립 주체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군정이 주도하여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한 것, 둘째는 일제 때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개편한 경우(고려대 · 연세대 · 이화여대 등), 셋째는 지방의 인사들이 주도하여 대학을 설립한 경우(청주대 · 대구대 · 조선대), 넷째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세력이나 인사들이 대학을 설립(국민대 · 단국대 · 국학대 · 신흥대학 등)한 경우이다.

해방 후 대학을 설립한 주체의 하나는 독립운동 세력이었다.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약칭)에서 대학을 설립하였다. 임시정부는 환국 후 '국민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취지아래 국내의 각계 인사들과 함께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발족시켰다. 그리환국이를 통해 1946년 9월 1일 국민대학을 설립하였다.[1] 이후 문제가 생겼다. 학장 申翼熙가 임시정부를 떠나환국한국독립당을 탈당후 '국다. 이를 계기로 국민대학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였던 張炯이 국민대학과 결별하고, 별도로 대학을 세웠다. 1947년 11월 단국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단국대학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 이를 통해 단국대학은 독립운동가였던 장형과 그의 동지였던 朴基鴻의 부인 趙喜在가 재산을 희사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장형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민대학을 설립하였던 사실이나, 국민대학과 결별하고 별도로 단국대학을 설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국대학은 장형과 조희재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이들이 단국대학을 설립하는 데는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글은 단국대학의 설립이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임시정부와 단국대학의 관

1)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국민대학을 설립한 데 대해서는 趙東杰, 「臨政 요인의 국민의 대학 설립」, 『國民大學報』 1995년 9월 18일자와 「海公 申翼熙의 임시정부 활동」,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장석홍,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민족대학 설립 - 국민대학의 설립을 중심으로」, 『忠北史學』 제11 · 12합집, 충북대 사학회, 2000, 金容達, 「海公 申翼熙의 家學과 民族教育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02 등의 연구가 있다.

2) 단국대학은 그동안 30년사, 40년사, 50년사, 60년사 등을 펴냈다. 이를 통해 단국대학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밝혀 놓았다. 이외에 柳東熙의 「美軍政期 大學設立에 관한 연구」(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란 논문에도, 단국대학에서 펴낸 교사를 근거로 단국대학 설립에 대해 언급하였다.

계를 밝혀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가 환국하여 '국민의 대학'을 설립하고자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발족한 과정, 장형이 이에 참여하여 국민대학을 설립한 사실, 장형이 김구와 함께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 운영한 실상, 그리고 장형이 국민대학과 결별하고 단국대학을 설립한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임시정부의 환국과 대학설립 추진

1. 임시정부의 환국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어 27년여동안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임시정부는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패망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환국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45년 9월 3일 주석 金九 명의 결정내에 들어가 추진할 당면정책을 밝혔다.[3] 그 핵심은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모든 직능을 과도정권에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도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정부가 정부로 활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국토는 분단되었고,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더욱이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고, 정부 명의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것을 종용하였다. 임시정부는 정부 명의로 입국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수 밖에 없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년 11월 23일과 12월 2일 두 차례로 나뉘어 환국하였다.[4]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석 김구는 기자들이 귀국 소감을 묻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지만 국내동포의 입장에서는 정부"라고 대답하였고, 임시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선전부장 嚴恒燮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자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5]

국내에 들어온 임시정부는 정부로 활동하였다. 제2진이 도착한 다음 날인 12월 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두 주석의 숙소인 경교장에 모였다. 여기에는 제1진과 제2진으로 나뉘어 귀국한 임시정부 국무위원 전원,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도 참석하였다. 당시 신문들은 이날의 모임을 '환국후 全閣僚가 모여 최초의 國務會議'를 열었다고 보도하였다.[6] 국무회의는 국내정세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

3)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 5(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매일신보사, 1999, p.671.
4)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pp.75~78.
5) 『조선신보』 1945년 11월 25일자; 『중앙신문』 1945년 11월 25일자.
6) 『自由新聞』 1945년 12월 4일자.

정부로서 활동하고자 하였지만,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를 자임하기 어려웠다. 환국 당시 정부의 명의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정 이외에 한국인에 의한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7]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도를 강구하였다. 국무회의에서 내무부 산하에 행정연구위원회와 정치공작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8] 이는 일종의 비밀조직이었다. 행정연구위원회는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의 조직을 국내 각 지방에 구축하기 위한 기구였다.[9] 당시 내무부장은 申翼熙였다.

신익희가 내무부장으로 행정연구위원회와 정치공작대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신익희는 정치공작대의 발족과 더불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종로6가 駱山莊에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1945년 12월 6일부터 함경도 · 평안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등 각지에 중앙본부원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이다.[10] 이들은 신익희의 인장이 찍힌 비밀신분증을 소지하고 각 지방에 내려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을 선택하여 조직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도 · 군 · 면 단위로 조직원을 확대해 나갔다.

임시정부가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때,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탁통치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1945년 12월 28일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임시정부가 반탁운동을 결의한 후, 신익희는 1945년 12월 29일 서울시내 9개 경찰서장을 불러 반탁운동에 호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정치공작대에 반탁시위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행정연구위원회로 하여금 포고문을 작성토록 하였다.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12월 31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주도하에 '신탁통치 결사반대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탁치반대'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때 신익희는 행정연구위원회가 작성한 포고문을 시내 곳곳에 붙이도록 하였다. 포고문의 명칭은 '國字제1호'와 '國字제2호'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 현재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구 및 한인직원을 전부 본임시정부 지휘하에 예속케 함.
- 일반 국민은 금후 우리 정부 지도하에 제반 사업을 부흥하기를 요망함

이는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의 행정과 경찰기구를 임시정부가 접수한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7) 宋南憲, 『解放三年史』 1, 까치, 1985, p.100.
8)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996, p.170.
9) 한시준, 「海公 申翼熙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p.115.
10) 박진희, 앞의 글, pp.176~177.
11) 국사편찬위원회, 『資料 大韓民國史』 1, 1968, pp.722~723.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활동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연합국이 결의한 신탁통치를 반대한 것이었고, 미군정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었으며, 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주권행사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자포고는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미군정에서는 이를 임시정부가 미군정의 정권을 탈취하려는 '임시정부의 쿠테타'로 받아들였고, 이에 격분한 미군정 당국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중국으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12] 임시정부를 자신들의 정권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존재로 여긴 것이다. 이 문제는 김구와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만나면서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공작대의 실체가 드러났고, 신익희도 미군정에 구금되어 신문을 받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2. 국민대학설립기성회 발족

임시정부는 중경에서 활동할 때인 1941년에 大韓民國建國綱領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이는 광복 후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가 건설할 민족국가의 대강을 밝힌 것으로, 핵심은 신민주국과 국민 최대다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정치 · 경제 · 교육의 세 방면으로 나누고, 세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은 국비의무교육제도에 두었다. 그 목적은 민족정기를 발양하고 국민도덕 · 생활기능 ·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 · 교통 · 문화 등의 형편에 따라 소학교 · 중학교 · 전문학교 · 대학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설치할 학교 숫자까지 정해 놓았다.[13] 임시정부는 환국 후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대학의 설립이었다.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는 행정연구위원회에서 맡았다. 그 책임을 맡은 것은 신익희였다. 그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일하는 尹白南 · 玉璿珍에게 대학설립 문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임시정부 요인들과 대학설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졌다.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대학은 법문 계통의 야간대학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대학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발족한다는 것이었다.[14]

대학설립의 추진은 국민대학설립기성회(이하 기성회로 약칭)를 발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월

12) 趙炳玉, 『나의 回顧錄』, 민교사, 1959, pp.165~166.
13) 한시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光復후 民族國家建設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540.
14) 申昌鉉, 『海公 申翼熙』,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92, p.206.

내수동에 있는 행정연구위원회 사무실을 빌리고, 李宗相을 간사로 위촉하여 기성회 발족을 준비해 나갔다. 기성회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임시정부의 수뇌부인 주석 金九 · 부주석 金奎植 · 외무부장 趙素昂 · 내무부장 申翼熙 등을 고문과 회장단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연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내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1946년 3월 3일 기성회를 발족하였다.

고 문 : 김구, 김규식
명예회장 : 조소앙
회 장 : 신익희
부 회 장 : 윤백남, 옥선진

이사
백낙준, 이종회, 윤일선, 박순천, 설의식, 이태규, 김정실, 조윤재, 정구충, 이창수
장 형, 이봉구, 이갑수, 강명옥, 윤길중, 유호준, 최영재, 최순철, 유각경, 김의희
김희운, 박철재, 김옥기, 최하영, 이덕홍, 김선태, 황신덕, 최병원, 강석린, 이문세
정군근, 한통숙, 김용근, 윤형중, 안동혁, 고병국, 김동일, 김동욱, 윤위부

상임이사
박철재, 조윤제, 최영재, 김인선, 유각경, 김선태, 윤길중, 유호준, 김정실[15]

기성회는 고문과 회장단, 그리고 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되었다. 고문 · 명예회장 · 회장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리고 이사와 상임이사는 행정연구위원회 위원과 국내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사 중 윤길중 · 황신덕 · 강명옥 · 최하영 · 한통숙은 행정연구위원이었고, 교육계(고병국 · 백낙준 · 윤일선), 학계(박철재 · 김동일 · 이태규 · 조윤제 · 안동혁), 여성계(박순천 · 유각경 · 황신덕), 행정계(한통숙 · 윤길중), 법조계(김선태), 언론계(설의식), 독립운동계(장형), 문인(이봉구) 등 여러 계통의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을 지도부로 하여 기성회가 발족되었지만, 기성회는 발족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였다. 미군정의 탄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임시정부 간판을 내세우거나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도하여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때문이었다. 기성회는 한국독립당 명의를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발족 후 사무실을 내수동에서 한국독립당 본부가 있던 운현궁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한국독립당 명의를 이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역할하면서 임시정부와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던 정당이었고, 김구와 조소앙이 중앙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16]

15) 국민대학교, 『國民大學校60년사』 통사편, 2007, p.32; 장석홍, 앞의 글, p.652.
16) 盧景彩, 『韓國獨立黨硏究』, 신서원, 1996, p.131.

기성회는 발족 후 두 달이 지난 후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 1946년 5월 18일 『동아일보』, 『朝鮮日報』, 『漢城日報』, 『獨立新報』 등이 일제히 기성회 결성을 보도한 것이다.[17] 보도내용은 운현궁안에 본부를 두고 있는 新民同志會가 중심이 되어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결성하였다는 것, 그리고 우선 예과와 전문학부 학생을 모집하여 야간부로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 『동아일보』는 「國立大學設立準備」라는 제목을 뽑아, 국립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기성회는 新民同志會가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신민동지회란 단체는 없었다. 신문보도에 신민동지회가 운현궁 안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하였지만, 운현궁 안에 본부를 두었던 것은 한국독립당이었다. 신민동지회는 임시정부 또는 한국독립당 명의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사용한 명칭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Ⅲ. 張炯의 참여와 국민대학 설립

1. 장형의 국민대학설립기성회 참여

임시정부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발족하였을 때, 훗날 '단국대학'을 설립한 張炯이 그 이사로 참여하였다. 40명이 참여한 기성회의 이사는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사진의 구성은 행정연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교육계 · 학계 · 여성계 · 행정계 · 법조계 · 언론계 · 문인 등의 인사들이었는데, 장형은 독립운동계 인사였다.

장형(이명 張世談, 호 梵亭, 1889~1964)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가였다. 장형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보성전문학교 3학년 때인 1911년 학업을 중단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주로 군자금 모집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형의 활동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金承學이 정리한 「義烈士 및 獨立運動者略傳」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 一名 世談이며, 호는 梵亭. 龍川人으로 1909년부터 梁起鐸 · 柳東說 등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고, 1919년에는 李極 · 安昌夏 · 李震山 · 全德明 등의 동지에게 군자금을 조달하였고, 全德元 · 吳東振 · 吳光鮮 등에게도 군자금을 전달하다가 수차 투옥되었으며, 현금과 패물 등을 수집하여 宋秉祚 목사를 통하여 임시정부 李始榮에게 전달하였다.[18]

---

17) 1946년 5월 18자로 『동아일보』는 「國民大學設立準備 新民同志會서 期成會結成」, 『朝鮮日報』는 「最初의 夜間大學 國民大學期成會에서 設立」, 『漢城日報』는 「五千萬圓財團으로 國民大學을 創設」, 『獨立新報』는 「서울에 國民大學 于先夜間部부터 設置」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18)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史, 1967, p.712.

장형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별명을 사용하였다. 별명은 張世談이었다. 장형의 활동은 주로 군자금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장형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 그리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보성전문학교에 다닌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보성전문학교는 반일적 성격과 애국애족을 표방하던 대표적인 학교였고, 교장 盧伯麟과 교사 南亨祐는 경술국치 직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법무차장을 맡기도 하였다.[19] 장형은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교주였던 孫秉熙로부터는 군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영향이 장형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하였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에 나서게 만들었다.

장형이 군자금을 제공한 梁起鐸·柳東說·全德元·吳東振·吳光鮮 등은 서간도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의 주요한 지도자들이었다. 양기탁은 大韓統義府·義成團·正義府 등 남만주지역의 대표적 지도자로 임시정부에서 國務領에 선출되기도 하였던 인물이고, 유동열은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탈출하여 상해·북경·서간도·연해주 등지로 오가며 활동하였다. 오동진은 서간도 관전현에서 大韓青年團聯合會와 光復軍總營을 중심으로, 전덕원은 관전현에서 大韓獨立團을 조직하여,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西路軍政署 별동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李始榮은 서간도에서 新興武官學校를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독립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었다. 만주나 중국대륙 등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고 활동하는데, 특히 독립군들이 무장을 갖추는데 군자금은 필수적이었다. 당시 독립군들이 무장을 갖추는 방법은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그곳에 있던 체코 군인들에게 총과 탄약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0]

군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조달하는 일은 주요한 독립운동이었다. 李會榮·李始榮 6형제가 집안의 전재산을 처분하여 서간도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일,[21] 朴尙鎭 등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만주로 전달한 일, 그리고 上海에서 활동하던 金昌淑이 국내에 들어와 스승인 郭鍾錫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을 모집하려다 발각된 일[22]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형은 서간도지역의 독립운동과 연계되어 활동하였다. 군자금 모집활동은 극비리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군자금 모집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장형은 서울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충청도·전라도 지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군자금 모집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박기홍의 재산관리인이었던 李錫夏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

1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p.90.

20) 독립군들의 무기구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고가 있다. "동포들의 피어린 협력에 의하여 우리 부대는 불과 3, 4개월 사이에 무려 5백여정의 소총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때 형편으로는 돈만 있으면 총기 사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연해주 일대에는 체코 부대와 세묘노프 白黨부대들이 후퇴하면서 그 총기를 마구 팔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어디서든 총을 용이하게 살 수 있어서 日貨로 15원만 주면 일제 38식 소총 한자루에다 백발이나 되는 탄환까지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金弘壹, 『大陸의 憤怒』, 문조사, 1972, p.124.)

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pp.110~111.

22) 金昌淑, 「躄翁七十三年 回想記」, 『金昌淑文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9, pp.233~239.

>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獨立軍 軍資金 工作活動 중 증언할 수 있는 것은 1933년 9월 내가 직접 고중권씨로부터 3천원을, 그리고 1934년 4월 서산 당진에 있는 李鑛씨로부터 2천원을 조달하여 張炯(당시 이름 張世談) 선생께 드린 일이며, 이는 내 일생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나는 梵亭선생이 침술의 名醫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책임자라는데서 무조건 존경하게 되었고(하략)[23]

장형은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면서 張世談이란 별명을 사용하였고, 또 침술의 명의로 행세하였다.[24] 장형의 이러한 활동을 국내의 여러 인사들이 도왔다. 그 중에서도 자금조달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 朴基鴻이었다. 박기홍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지주였고, 장훈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육영사업가였다. 이러한 박기홍이 장형의 동지로서 국내의 거점과 창구역할을 하였고, 그 자신도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장형의 군자금 모집과 관련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다. 장형이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두 차례 투옥된 자료들이 최근 발굴된 것이다. 하나는 1930년 9월 4일자 『동아일보』에 張世談이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을 받았다는 보도이다. 이는 장세담이 "심령술로 백병을 다 고친다고 힌소리를 하며 일만일천여원의 거금을 편취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기사로, 신의주에서 예심을 받고 공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25]

다른 하나는 1938년에 피체되어 재판을 받은 판결문이 발굴되었다.[26] 아직 검찰조서를 찾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판결문에 대략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장형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사는 洪琫裕에게 병을 치유해주겠다며 2천 6백원을 차입하였다가 그의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만주로 가겠다고 하여, 홍봉유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되었다. 이로 인해 장형은 세 차례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에서 있었고, 징역 1년형을 받았다. 2심은 경성복심법원에서 받았고, 역시 징역 1년이었다. 3심은 상고하여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받았지만, 기각 당하였다. 장형은 1930년과 1938년 두 차례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는데, 모두 '사기죄'였다. 당시 일제는 군자금과 관련된 사건을 대부분 '사기죄'로 취급하였고, 이외에 '강도죄' '강도미수죄' 등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판결문에 장형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장형이 만주의 安東(현 丹

---

23) 李錫夏의 증언(梵亭 惠堂紀念事業會, 『梵亭言行錄』, 檀國人會, 1996, pp.102~103.)

24) 장형은 국내에 들어와 심령술 · 지압 · 침술의 명의 등으로 행세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일제 경찰의 감시와 체포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이런 행세를 하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이 한의사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25) 「心靈術로 愚民詐欺 數萬圓을 騙取, 신의주에 잡혀잇는 장세담 二日附로 豫審終結」, 『동아일보』 1930년 9월 4일자.

26) 장형이 1938년에 피체되어 재판을 받은 판결문이 3건이 발굴되었다. 「昭和13年刑公第316號」(大田地方法院 瑞山支廳, 1938년 8월 31일), 「昭和13年刑控第391號」(京城覆審法院, 1938년 10월 31일), 「昭和13年刑上第167號」(高等法院刑事部, 1939년 3월 13일)이 그것이다. 이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이홍구가 발굴하여 소장하고 있다.

東)에서 미곡상을 운영하였고, 吉林省 盤石縣에 정미소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 피고인은 만주국 안동현에서 피고인의 자금 8,500원을 가지고 미곡상을 하고 있던 그의 조카 金濟鉉으로 하여금 同國 吉林省 盤石縣에서 정미소를 대금 2,000원으로 매수하였다. 계약금 300원은 지급하였고, 잔금 1,700원을 조달하기 위하여(후략)

이로보면 장형은 안동에 미곡상을 차렸다. 안동에서 '미곡상을 하고 있던 金濟鉉'은 그의 조카로, 누이의 아들이었다. 당시 안동이란 곳은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국내와 서간도, 그리고 국내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중간 연락거점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안동이었다.[27] 장형은 이런 안동에 미곡상을 차렸고, 더아나가 길림성의 반석현에 정미소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판결문이 발굴되면서 드러난 것인데, 장형은 그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한 적이 있다.

> 내가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 할 때 창고에 쌀을 가득히 쌓아 놓고, 그 쌀을 중국인들에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소만국경에 가서 무기를 구입하는 일을 전담하던 때가 있었는데(후략)[28]

판결문과 장형 자신의 술회가 일치한다. 장형은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외에, 안동에서 미곡상을 경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소만국경(滿洲里)에 가서 무기를 구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형은 정미소를 매입하였다. 이는 보다 안정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金佐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미소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김좌진은 북만주 海林에서 韓族總聯合會를 조직하여 활동할 때, 山市驛 앞에 金星정미소를 차리고, 직접 이를 운영한 일이 있었다.[29]

서간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장형이 국민대학설립기성회에 이사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金弘壹과 만난 것이 그 계기였다. 김홍일은 貴州講武堂을 졸업하고 중국군 소장으로 복무하였던 인물로, 해방 직후 임시정부의 명을 받고 심양에 와 있었다.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후 중국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만주지역 동포를 보호하는 책임을 김홍일에게 맡겼다. 김홍일은 이를 위해 瀋陽에 도착하였고, 심양에 東北韓僑事務處를 설치하고 동포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30] 그가 심양에 왔을 때, 많은 교포들이 그를 찾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김홍일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나에게 대한 축하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각지에서 찾아오는 교포들의 수가 많았다"라 서술하고 있다.[31]

---

27) 孫科志, 『上海韓人社會史』, 한울, 2001, pp.46~50.
28) 앞의 『梵亭言行錄』, p.136.
29) 徐紘一 · 李賢周, 「北滿洲에서의 韓國獨立運動」,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 집문당, 1997, p.490.
30) 金弘壹, 『大陸의 憤怒』, 文潮社, 1972, pp.383~391.
31) 金弘壹, 앞의 책, p.391.

장형은 길림 반석현에서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심양에서 김홍일을 만났다. 김홍일은 평북 용천 출신으로 장형과 같은 고향이었다. 이때 김홍일은 장형에게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갔다. 여기에 있지 말고 국내로 들어가서 김구 선생을 도와라"고 하며, 통행증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32] 당시 만주지역은 소련군을 비롯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고, 각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했다. 장형은 김홍일이 만들어 준 통행증을 갖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귀국 후 곧바로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국민대학설립기성회에 참여하였다.

2. 국민대학 설립

임시정부의 대학설립은 국민대학설립기성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기성회는 1946년 5월 18일 그 발족을 공표하고, 낙원동에 있는 옛 서북학회 회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대학설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성회는 고문 · 명예회장 · 회장과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실무를 주도한 것은 회장인 신익희와 이사인 장형이었다.[33] 이외에 후일 건국대학을 설립하는 劉錫昶도 자주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건물 주인이었다.

기성회에서 구상한 대학설립은 종합대학 규모였다. 기성회가 그 결성 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설립할 대학의 규모가 나타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아일보』는 제목을 「國立大學設立準備 新民同志會서 期成會結成」으로 뽑아, '국립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우선 제1기로 야간부만을 두고, 예과와 전문학부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학제는 專門部 · 豫科 · 法文學部 · 理工學部 · 醫學部로 한다고 한 것이다.[34] 이로보면 기성회는 종합대학을 설립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

기성회는 대학설립을 위한 기금을 모집하였다. 우선 창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금모집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기부자들을 접촉하였지만, 기금을 모집하는 일은 여의치 않았다. 기금을 모집하는 일이 어렵게 되자, 장형이 나서서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趙喜在가 5만평의 토지를 내놓았다.[35] 조희재는 장형의 동지였던 朴基鴻의 부인이었다. 기금모집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 60년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그런데 국민대학은 기성회 설립 당시 5만평의 토지기부를 약속했던 박기홍의 미망인 조희재 여사와 이사진으로 참여한 장형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떼면서 재단을 구성할 교사 하나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36]

---

32) 張忠植 증언(2007년 3월 17일 자택에서 이성규 교수와 함께 청취).
33) 앞의 『國民大學校60년사』(통사편), p.35.
34) 「國立大學設立準備 新民同志會서 期成會結成」, 『동아일보』 1946년 5월 18일자.
35) 檀大30년사편찬위원회, 『檀國大學校三十年史』, 단국대 출판부, 1977, p.78.
36) 앞의 『國民大學校60년사』(통사편), p.36.

5천만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토지를 기부하기로 했던 조희재와 장형이 손을 떼면서 국민대학이 재단을 구성하거나 교사 하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으로 보면, 모집한 기금은 토지 5만평이 전부 아니었나 싶다.

기성회는 1946년 9월에 개교한다는 목표아래, 대학설립을 추진하였다. 개교일을 9월로 잡은 것은 미군정 학무국에서 학기제를 변경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토록 한 일이 있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 1946년 3월 7일 신교육제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제1학기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제2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로 한다고 하였다.[37] 이에 의해 제1학기가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됨에 따라 개교 일자를 9월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기성회의 대학설립 추진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설립기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군정이 기성회가 신청한 대학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당시 미군정은 국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38] 미군정이 추진하는 국립서울대학 설립은 임시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설립을 경계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9] 이는 동아일보가 국민대학설립기성회의 결성을 보도하면서, '국립대학설립준비'라고 보도하여, 임시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인식된 이유도 있었다.

또 신익희가 주도한 '제2쿠테타'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신익희가 주도하는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는 8월 29일 국치일을 맞이하여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위, 그리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임시정부의 비상국민회의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40]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신익희가 미군정에 연행 감금된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성회는 교사를 마련하고 대학을 설립하였다. 기금이 확보되지 않아 별도로 校舍를 마련할 수 없었다. 교사는 보인상업학교 별관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다. 여기에는 보인상업학교 상무이사 이종국의 역할이 컸다. 이종국은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3·1절 기념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헌금실행단이 결성될 때 감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보인상업학교측에서 교사를 빌려주었고, 시설도 제공하였다.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를 마련한 후, 기성회는 신학기에 맞추어 개교하는 것으로 대학을 설립하였다. 1946년 9월 1일 보인상업학교에서 모집한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교식을 거행한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종합대학 규모로 설립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 학교의 명칭은 '국민대학관'으로, 그리고 학부와 전문부를 두기로 하고, 법학과와 정경학과로 출발하였다.[41]

---

37)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1992, p.233.

38) 柳東熙, 「美軍政期 大學設立에 관한 硏究」;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50.

39) 조동걸, 「臨政요인의 국민의 대학 설립」,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p.376; 장석홍, 앞의 글, pp.655~656.

40) 이강수, 「국민대학교와 미군정」, 『해공의 건학이념과 국민대학교 설립의 역사적 의의』, 국민대학교 개교53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1999, p.44.

이로써 국민대학이 설립되었다. 국민대학의 설립은 기성회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임시정부가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기성회의 실무를 맡아 대학설립을 주도한 것은 신익희와 장형이었다. 그 중에서도 장형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신익희가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장형이 실무를 맡고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Ⅳ. 金九와 張炯, 건국실천원양성소 설립 운영

1. 건국실천원양성소 설립

국민대학을 설립한 후, 김구는 별도로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하였다. 건국실천원양성소는 말그대로 '건국실천원', 즉 건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1개월 과정의 임시교육기관이었다.

김구가 건국실천원양성소(이하 건실로 약칭)를 설립한 것은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수립한다는 임시정부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시정부는 1945년 9월 3일 주석 김구 명의로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모든 직능을 과도정권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당면정책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임시정부는 환국 후, 과도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환국 직후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의 조직을 국내 각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연구위원회는 과도정권 수립에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임시정부가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국자포고'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국자포고'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추진하려는 과도정권 수립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김구는 임시정부 명의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방법을 바꾸었다. 1946년 1월 4일 "남의 손을 기대할 것 없이 우리의 손으로 신속하고 강고한 과도정권을 수립하자"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혁명당파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혁명영수들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것이다.[42] 임시정부 명의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각 정당 및 단체의 대표들로 비상정치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구의 제의는 결실을 맺었다. 한 달여의 준비를 거쳐 1946년 2월 1일 각계 인사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 천주교회당에서 非常國民會議를 결성한 것이다.[43] 비상국민회의는 임시정부의

41) 장석홍, 앞의 글, p.655.
42) 「비상정치회의를 즉각 소집하자」, 『서울신문』 1946년 1월 5일자.
43) 「비상국민회의 개막」, 『조선일보』 1946년 2월 1일자.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것으로, 그 후계체나 다름없었다. 비상국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임시의정원 의장과 부의장인 洪震과 崔東旿가 그대로 맡았다.[44]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이 역시 미군정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비상국민회의가 활동을 시작하자,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분쇄해야 한다"며, 지금이 임시정부의 권위를 빼앗을 적절한 시기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려 보낸 것이다.[45] 미군정은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된 지 보름만인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회를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개편하고, 이를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만들었다.

과도정권 수립을 어렵게 만든 것은 미군정의 제재 뿐만 아니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어려움을 증폭시켰다.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했지만, 해방정국에서 수많은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탁과 찬탁을 둘러싸고 좌우익으로 나뉘어 극렬한 대립으로 치달았고, 李承晩은 1946년 6월 3일 '정읍발언'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김규식과 여운형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좌우합작운동 마저 결렬되면서, 과도정권 수립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독립운동 때에 투사가 필요하였듯이, 건국을 위해서도 독립투사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요 단계였다. 김구는 자주적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겼다.

김구는 건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실무는 자신의 최측근인 嚴恒燮에게 맡겼다. 엄항섭은 여러 인사들과 협의하여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1946년 12월 7일 건국실천원양성소기성회를 발족시켰다. 건실기성회는 건실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기구였다. 金九 자신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진승록 · 안호상 · 황기성 · 손홍린 · 김석길 등 5명이 위원이었다.[46]

건실기성회는 3개월의 준비를 거쳐,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하였다. 1947년 3월 20일 용산의 元曉寺에서 입소생과 관련 인사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실의 개소식을 거행한 것이다.[47] 건실은 김구가 직접 맡아 운영하였다. 설립 당시 건실은 소장과 상무이사 체제였고, 김구가 소장이었다.

소 장 : 김구
상무이사 : 황기성, 김석길, 손홍린, 진승록, 안호상, 강낙원[48]

---

44)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p.320.
45) 도진순, 「1945~1946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우익진영의 분화」,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1992, p.361.
46) 「建國實踐員養成所 設立準備」, 『自由新聞』, 1946년 12월 7일자; 「건국실천원양성소기성회 조직」, 『동아일보』, 1946년 12월 8일자.
47)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 8(건국 통일운동), 대한매일신보사, 1999, p.232.
48) 이홍구, 「해방 후 백범 김구의 建國實踐員養成所의 설립과 운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백범학술원, 2008, p.314.

건실은 건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임시교육기관이었다. 건실은 매기마다 100여명의 입소생을 모집하여, 1개월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입소생들은 20세에서 45세까지 중등교육을 받은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독립당 · 대동청년단 · 대한청년단 등 애국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었다. 1947년 5월 제1기생이 수료한 이래 1949년 12월 해체될 때까지 모두 9기생이 수료하였다.[49]

건실에는 유능한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강사진도 정치 · 경제 · 언론 · 교육 등 각 분야의 명망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운영은 여의치 않았다. 입소생들에게 교육비를 받지 않아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였지만, 김구가 운영하는 건실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인사가 많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더욱이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당하면서, 건실과 관련한 인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조사와 탄압을 받았다. 이로인해 건실을 유지 운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건실 이사회는 1949년 8월 해산을 결정하였고,[50] 그해 12월 건실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2. 건국실천원양성소 운영

건실은 1947년 3월부터 1949년 12월 해체될 때까지 3년 가까이 운영되었고, 이동안 모두 9기생이 수료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건실 수료생들이 1970년대에 들어와 동문회를 결성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몇가지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새로 발굴된 자료들 중에 장형이 이사장으로 건실의 운영에 깊게 관련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다.

장형은 건실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새로 발굴된 자료 중 제5기와 제8기 受業生 名簿가 있다. 여기에 건실의 기구와 조직이 나타나 있고, 장형이 제5기에 건실 이사장으로 활동 사실이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실의 조직과 기구는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1947. 3.)	제5기(1948. 11. 1. ~ 12. 19.)	제8기(1949. 6. 5. 수료)
소 장 : 김구 상무이사 : 6명	명예소장 : 이승만 소 장 : 김구 부 소 장 : 엄항섭 이 사 장 : 장형 이 사 : 8명 감 사 : 2명 직 원 : 5명	명예소장 : 이승만 소 장 : 김구 부 소 장 : 김학규 이 사 장 : 엄항섭 이 사 : 12명 감 사 : 1명 직 원 : 6명

49) 이홍구, 앞의 글, pp.318~338.

50) 「金九가 소장으로 있던 建國實踐員養成所를 해산하기로 결정」, 『朝鮮中央新聞』 1949년 8월 25일자. 이후 건실은 홍익대 재단이 인수하였고, 1949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건실은 설립 당시 이사장이 없었다. 소장과 상무이사로만 구성되었다. 이사장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제5기부터는 이사장이 있었다. 장형이 제5기에만 이사장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앞과 뒤에도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장형이 건실의 이사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건실의 재정 관계 때문이었다. 설립 당시 건실에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은 이사진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손홍린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그는 건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고, 적산으로 불하받은 건물을 건실의 사무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실의 운영에 적지않은 재정이 필요했다. 입소생들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였고, 1백여명에 달하는 입소생들의 숙식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구가 소장으로 있는 건실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인사도 없었다. 건실에서는 입소생들에게 일정한 합숙비를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였지만, 재정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구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만들고, 장형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맡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형은 해방 직후 심양에서 만난 김홍일이 '국내에 들어가 김구 주석을 도우라'는 말을 듣고 귀국하여,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국민대학설립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 김구가 제의하였을 때 장형은 이를 받아들였고, 건실의 이사장을 맡았다.[52] 그리고 건실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장형은 건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사장으로 재정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하여 단국대 이사 · 학장 · 교수 · 학생들을 건실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단국대 부학장 金正實은 건실의 이사를 맡았다. 그리고 장형 자신이 직접 講師로 나서 國民思想이란 과목을 맡아 강의하였고, 단국대 학장 張道斌과 교수 丁洛鎭도 강사로 國史와 民法을 강의하였다.[53]

김구와 장형과의 관계는 각별하였던 것 같다. 문헌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증언이나 사진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장충식의 증언에 의하면, 김구와 장형 사이에는 편지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맡았다고 한다. 그리고 1949년 1월 18일 장형의 환갑 때 김구가 내수동에 있는 장형의 집을 방문하여, 김구 · 장형 · 장도빈 · 엄항섭 · 박정숙 · 김정실 · 양주동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김구가 장형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학생회 간부가 그 정황을 증언해 놓은 것도 있다. 장형이 김구에게 "형님이 이렇게 오셨으니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말씀을 해주시오"하자, 김구는 학생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

단국대학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대학이며, 학생들은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공부한다

51) 이홍구, 앞의 글, p.332.
52) 張忠植 증언(2007년 3월 17일, 자택에서).
53) 건국실천원양성소에서 대한민국 30년(1948년) 12월 19일자로 작성된 〈第五期受業生名簿〉(백범기념관 소장 자료).

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면서 "첫째도 나라사랑, 둘째도 나라사랑, 셋째도 나라사랑 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며, 더욱이 梵亭 아우의 愛國愛族하는 氣風이 단국대학생들에게 넘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하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54]

장형은 김구를 '형님'이라 불렀고, 김구는 장형을 '아우'라고 불렀다. 장형이 건실의 이사장을 맡은 것은 김구와의 이러한 관계 때문이었다.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장형은 김구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김구가 설립한 건실의 운영에도 이사장을 맡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V. 張炯의 국민대학 결별과 단국대학 설립

1. 국민대학과 결별

장형은 국민대학설립기성회에 참여하여 이사로서 신익희와 함께 국민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신익희와 함께 국민대학을 운영해 나갔다. 신익희는 학장이었고, 장형은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55] 국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하게 되었다.

국민대학과 결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신익희가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떠나 이승만측과 한국민주당에 합류한 때문이었다.

신익희는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이었다. 환국 후에도 내무부장으로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공작대가 해체되면서, 신익희는 임시정부를 떠났다. 정치공작대의 해체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 수 없지만, 미군정 보고서에 1946년 4월 28일과 29일에 김구와 이승만이 정치공작대 임시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정치공작대를 이승만이 주도하고 있던 독립촉성국민회에 합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56]

정치공작대는 '국자포고' 사건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해체 압력을 받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신익희의 비서였던 申昌鉉은 "미군정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합동회의를 열어 임시정부의 손발과도 같은 지방조직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 정치공작대의 해체를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57] 이로보면 신익희는 임시정부에서 정치공작대 해체를 결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

54) 姜在勳, 「白凡 金九선생과 梵亭 張炯선생」(앞의 『梵亭言行錄』, p.154).
55) 『國民大學30년사』(p.69)에는 이사로 되어 있다.
56) 박진희, 앞의 글, pp.197~198.
57) 申昌鉉, 『海公 申翼熙』, 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1992, p.244.

신익희는 임시정부가 정치공작대를 해체한 데 대해 상당히 분격해 하였다. 신창현은 이러한 상황을 "이때 해공은 해체 결의에 찬동하는 그 思考에 불만과 한심함을 금치 못하였다" "가슴속에는 상심과 분노로 꽉차 있었다"고 하면서, 신익희는 이 울화를 가라앉히느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술토색으로 일과를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다.[58]

임시정부 요인들과 신익희 사이에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 신익희는 국내에 들어온 후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임시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국민주당의 인사가 김구를 찾아와 "이제 이 천하는 김구의 천하가 아니라 신익희의 천하다"라는 충동질을 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59]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신익희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떠나게 만들었다. 직접적 원인은 정치공작대 해체였다. 신익희는 "임시정부의 조직체이며 임시정부의 손과 발 노릇을 할 엄청난 기반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임시정부를 떠났다고 한다.[60] 임시정부를 떠난 신익희는 이승만과 손을 잡았다. 이승만이 주도하고 있던 독립촉성국민회에 참여하여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다.[61]

임시정부를 떠난 이후, 신익희는 한국독립당에서도 탈당하였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기초세력이었고, 임시정부와는 표리일체의 관계였다. 신익희는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도 한국독립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7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한다'며, 한국독립당을 탈당하였다.[62] 그리고 한국민주당에 들어갔다.

신익희가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떠나 이승만측과 한국민주당에 참여하면서,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하였다. 국민대학과 결별한 것은 1947년 7월 신익희가 한국독립당을 탈당한 직후였다. 장형은 신익희가 임시정부를 떠난 데 이어 한국독립당마저 탈당한 것을 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겼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던 장충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63]

> 내가 기억이 나는데, 내수동 집에 해공 선생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손님이 오면 여자가 안 들어가요. 저나 아버지 비서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 범정 왜 이러십니까"하고 야단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해공, 어찌 백범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이요"하면서, 해공 선생을 막 때리세요. 그때 안에서 싸움이 나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렸죠. 그때 이제 결별하게 된 거에요.

58) 申昌鉉, 앞의 책, p.245.
59) 박진희, 앞의 글, p.191.
60) 申昌鉉, 앞의 책, p.294.
61) 박진희, 앞의 글, p.202.
62) 「신익희 한독당 탈당」, 『동아일보』 1947년 7월 20일자.(앞의 『白凡金九全集』 8, p.263).
63) 장충식 증언(2007년 3월 17일, 자택에서).

장형은 신익희가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떠나 이승만측과 한국민주당에 참여한 것을 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 무렵 김구와 이승만은 정부수립 문제를 둘라싸고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김구는 이를 민족을 분단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익희의 행동을 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긴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하였다.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하면서, 조희재가 기증하기로 한 5만평의 토지를 취소하였다. "국민대학은 기성회 설립 당시 5만평의 토지 기부를 약속했던 박기홍의 미망인 조희재 여사와 이사진으로 참여한 장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떼면서"란 서술이 그것이다.[64] 기부하기로 한 토지를 취소한 것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였다.

2. 단국대학 설립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한 후, 독자적으로 대학설립을 추진하였다. 국민대학은 임시정부에서 세운 대학이지만, 그 정신을 잇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신익희가 임시정부를 '배신'함으로써,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장형은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학을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였다.

국민대학과 결별한 후, 장형은 곧바로 대학설립을 추진하였다. 대학설립 문제를 조희재와 의논하였다. 조희재는 대학설립에 적극 찬동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80만평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장형 자신도 그의 조부가 가지고 있던 제천의 산판을 매각하여 보탰다. 이로써 대학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이 마련되었다.

장형과 조희재는 대학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7월 金正實과 李錫夏에게 대학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65] 김정실은 국민대학 교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장형을 적극 도왔던 인물이었고, 이석하는 박기홍의 재산관리인이었다. 그리고 제자인 姜在勳과 申周鉉으로 하여금 실무를 보조케 하였다.

장형은 대학설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났다. 金九를 비롯하여 보성전문학교 시절부터 친구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인 張道斌, 민족주의 사학자이면서 언론인이었던 安在鴻, 대종교의 安浩相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었다. 장형은 이들에게 국민대학과 결별한 이유와 별도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학설립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이름이 '檀國'으로 결정되었다. 장형은 교명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지금 임시정부와 김구가 나서서 남북통일과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의 이름은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안호상 · 안재홍 ·

64) 앞의 『國民大學校60년사』(통사편), p.36.
65) 李錫夏, 「設立者 梵亭 張炯先生」(앞의 『梵亭言行錄』, pp.102~104).

장도빈 등은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면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냐. 남북을 막론하고 단군의 건국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남북통일과 통일정부수립을 위해서는 단군의 건국정신을 고취해야 한다는 뜻에서 교명을 '단국'으로 결정하였다.

교명을 '단국'으로 결정한 데 대해 『단국대학교50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두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국호야 어찌되었든 檀君聖祖의 한 자손으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번영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야. 이 땅을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며, 그 올바른 교육이란 곧 단군성조의 弘益人間 정신이라 믿으며, 그 정신은 단군으로부터 이어오는 하나의 핏줄의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 나라 후손들의 가슴속에 심어서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의욕을 고취해야 됨으로 교명을 단국대학이라 명명하고, 단군의 건국이념을 곧 建校理念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일세

>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나의 선친과 장도빈 선생님, 그리고 뜻을 같이했던 분들이 모여 학교이름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결국 國祖 檀君의 弘益人間을 교육이념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국에서 '檀'자를 따고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애국에서 '國'자를 따서 '檀國'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어요.

앞의 것은 동문인 조동규가 장형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고, 뒤의 것은 장충식의 증언이다. 장충식의 증언에 학교이름을 정할 때 장도빈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흔히 '단국'이란 교명은 단군의 건국정신을 기리는 데서 나온 것으로, 그리고 '단국대학'은 단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국대학을 설립한 계기나 연원을 단군에서 찾는 것은 설립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장형이 설립하고자 한 대학은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데 있었고, '단국'이란 교명은 임시정부와 김구가 의 의고 있던 통일국가수립을 지지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교명을 '단국'으로 결정한 후, 장형은 단국대학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설립준비위원회 결성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1947년 9월 15일 이전이었다. 9월 15일자로 설립준비위원회 명의로 미군정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이다.[66] 단국대학설립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 설립준비위원장 : 趙喜在
> 이사장 겸 이사 : 張炯

66) 미군정청에 제출한 설립인가신청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47년 11월 1일 南朝鮮過渡政府 文敎部長 兪億兼 명의로 설립인가를 승인한 '文高發 제51號'가 있다. 이에 의하면 1947년 9월 15일에 재단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앞의 『檀國大學校三十年史』, p.79).

이사 : 趙喜在, 朴正淑, 金正實, 李淡, 白原康, 張勳, 李錫夏, 張道斌
감사 : 金鴻濟[67]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희재를 위원장, 장형을 이사장으로 하였고, 8명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었다. 이사 중 박정숙은 조희재의 여식이었고, 이담은 培英學館 이사였다. 그리고 백원강은 중국 봉천 일대에서 활동한 유명한 권투선수로 독립운동 시절 장형을 도왔던 인물이었고, 장도빈은 민족주의 사학자로 보성전문학교 시절부터 장형의 친구였다.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대학설립은 본격화되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낙원동에 있는 朝鮮政治學館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조선정치학관은 유석창의 소유였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대학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한편, 학제를 결정하고 학생을 모집하면서 개교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다.

대학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미군정청에 재단법인과 대학설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설립준비위원회는 1947년 9월 15일 재단법인, 대학설립, 이사장 승인 등을 미군정청에 요청하였다. 한 달 보름만인 11월 1일 인가를 받았다. 남조선과도정부 문교부장 兪億兼 명의로 「財團法人 檀國大學設立의 件 認可함」, 「檀國大學設立의 件 認可함」, 「理事長 理事及監事就任의 件 認可함」이란 세 건의 인가가 있었고,[68] 이는 11월 3일 설립준비위원장 조희재에게 전달되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학생을 모집하고 개교를 준비하였다. 학제는 정치학부와 문리학부로 정하고, 5개 학과로 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을 선발하였다. 1947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문교부 감독관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을 치렀다. 이를 통해 96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69]

정치학부 : 정치학과(240명), 법률학과(240명)
문리학부 : 사학과(240명), 수학과(120명), 물리과(120명)

학생을 선발하면서, 개교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었다. 교사는 조선정치학관 2층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교주는 조희재, 이사장은 장형이 맡았고, 장도빈을 학장으로 초빙하였다. 그리고 1947년 12월 3일 휘문중학교 강당에서 문교부 차장 吳天錫과 미군정 장관 딘 소장을 비롯하여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학식을 거행하였다.[70]

67) 앞의 『檀國大學校三十年史』, p.80.
68) 앞의 『檀國大學校三十年史』, pp.79~80.
69) 앞의 『檀國大學校五十年史』 상, p.117.
70) 앞의 『단국대학교60년사』 상, p.97.

Ⅵ. 맺음말

해방 후 대학을 설립한 주체의 하나는 독립운동 세력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환국 후, 국내에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는 환국 직후 내무부 산하에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행정연구위회에 대학설립을 맡겼다. 신익희가 내무부장으로 그 책임을 맡았다.

신익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협의하여 '국민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취지아래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기성회는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을 고문, 외무부장 조소앙을 명예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신익희가 맡았다. 국내의 각계 인사 40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기성회 중심으로 대학설립을 추진해 나갔다.

기성회에서 실무를 주도한 것은 회장 신익희와 이사 장형이었다. 장형은 군자금을 모집하며 서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심양에서 김홍일을 만나 '국내에 들어가 김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귀국하여 이사에 참여하였다. 기성회는 5천만원의 대학설립 기금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때 장형이 독립운동 시기의 동지였던 박기홍의 미망인 조희재로부터 5만평의 토지를 기증받았다. 그리고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여 1946년 9월 1일 국민대학을 설립하였다.

국민대학은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었다. 신익희가 학장, 장형이 이사장으로 대학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신익희가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떠나 이승만측과 한국민주당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장형은 이를 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고, 국민대학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잇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장형은 국민대학과 결별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대학을 별도로 설립키로 했다. 조희재가 이에 적극 찬동하고, 80만평의 토지를 기증하였다. 장형은 이를 기반으로 대학설립을 추진, 1947년 11월 단국대학을 설립하였다. 단국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은 국민대학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단국대학이었다.

여기에는 김구와의 관계도 작용하였다. 장형은 김구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고, 김구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구가 설립한 건국실천원양성소의 이사장을 맡아, 소장 김구와 함께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단국'이란 교명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장형은 임시정부와 김구가 추진하는 통일국가수립을 지지하였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하는데, 남북이 모두 받들 수 있는 것은 단군의 건국정신이라 보고, 교명을 '단국'이라고 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방 후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국민대학과 단국대학, 두 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두 대학 나름대로 임시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대학이 임시정부의 적통이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두 대학이 모두 설립의 연원과 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학교의 설립근거와 뿌리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는 있다. 다행히 국민대학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국대학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단국대학은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설립된 대학이다. 설립자의 의도와 설립과정을 더 깊이 연구하여, 대학의 정통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 1968.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5 · 8, 대한매일신보사, 1999.

범정 혜당기념사업회, 『범정언행록』, 1986.

「昭和13年刑公第316號」, 大田地方法院 瑞山支廳, 1938년 8월 31일.

「昭和13年刑控第391號」, 京城高等法院, 1938년 10월 31일.

「昭和13年刑上第167號」, 高等法院刑事部, 1939년 3월 13일.

송남헌, 『해방3년사』, 까치, 1985.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신보』

『조선일보』

『중앙신문』

연구논저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7.

김용달, 「해공 신익희의 가학과 민족교육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02.

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노경채, 『한국독립당연구』, 신서원, 1996.

도진순, 「1945~1946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우익진영의 분화」, 『역사와 현실』 7, 1992.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996.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1992.

신창현, 『해공 신익희』, 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1992.

유동희, 「미군정기 대학설립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홍구,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실천원양성소의 설립과 운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2008.
장석홍,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민족대학 설립」, 『충북사학』 11 · 12합집, 충북대사학회, 2000.
조동걸, 「해공 신익희의 임시정부 활동」,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998.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후 민족국가건설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한시준, 「해공 신익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Abstrac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ankook University

Han, See-jun*

Since 1945, many powers of Korean Independent movement including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GRK) were participated in the foundation of a university (or a college). Just after returning home from abroad, PGRK set up 'A Group of Political Underground Activities' and 'A Committee of Administration Research'. And PGRK, under the responsibility of Sin, Ik-hee, put the foundation of a university in charge of 'A Committee of Administration Research'.

Sin Ik-hee, under the aim for founding a people's university, organized 'An Associ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Plan (ARP) to founding Kookmin University. ARP invited Kimkoo and Kim Kyu-sik as advisors, Tjo, So-yang as an honorary chairman, 40 society personages of the interior as directors, and Sin Ik-hee became Chairman of ARP.

Sin Ik-hee as Chairman and Chang Hyoung as one of directors fully led Practical business affairs of early ARP. Chang Hyoung was a leader of an independence movement who was acted for collect war funds in the western Gando region. Since 1945, when he met Kim Hong-il on SimYang, Kim suggested him to help Kimkoo. Then he returned to Seoul and joined ARP. ARP had a plan for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with 50 million won as fund-raising, but the plan is not easy to be achieved. At that time, Cho Huijae, who was Park Ki-hong's widow, donated 5 thousand pyeong(= 6,013㎡) to ARP through Chang Hyoung who was a close friend of Park Ki-hong. By basic of this property, Kookmin University was founded on September 1946.

Kookmin University was founded by PGRK and was managed by Sin Ik-hee as the president and Chan Hyoung as the chair director. However, Sin Ik-hee left PGRK and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joined to the side of Rhee Syngman and Korean Democratic Party. Chang Hyoung thought that Sin's political movement was a betrayal against Kimkoo and Kookmin University could not success the spirit of PGRK.

Chang Hyoung left from managing Kookmin University, and decided to found a new university which success Kimkoo's spirit. At the time, Cho Huijae positively agreed and donated her property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about 80 thousand pyeong) to Chang Hyoung again. Chang Hyoung tried to set up a new university within a basis of the property, and founded Dankook University on November 1947. Therefore, the foundation of Dankook University was a proof to the contrary by failure of Kookmin University as the succession of the spirit of PGRK.

[Key Words]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GRK)/ An Associ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Plan (ARP) to founding Kookmin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Centre of Training people for Founding Country/ Kimkoo/ Sin Ik-hee/ Chang Hyoung/ Cho Huijae